

and students.

In Media Lab, various creative and educational activities are available, including workshops on how to edit videos necessary for producing digital content. New Box and Cave on the first floor feature media art products created by world-class artists, which are impressive and showcase sensorily changing videos. Media art encompasses the latest media content, incorporating culture, art, and education.

Giant Steps is among the artworks on display and was born out of a collaboration between Everything Universal, an international media art and design collective established in 2004, and IT dinosaurs, such as Google and Microsoft. This artwork depicts a giant within virtual reality traveling across the campus and exploring both hidden and well-known spaces.

##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전남대학교 제22대 총장, 이근배 박사 취임

#### “지역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전남대학교 만들겠다”

전남대학교 제22대 총장으로 이근배 박사가 2025년 2월 26일(화) 공식 취임했다.

이날 취임식은 오후 2시, 대학 내 민주마루에서 열렸으며, 전임 총장을 비롯한 주요 내외빈, 교수, 직원, 학생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해 전남대의 새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근배 총장은 “지난 26년간 교수로 몸담아온 모교에서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1952년 창학이념을 되새기며 초심으로 돌아가 전남대학교를 더욱 굳건히 세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소통’과 ‘지역 상생’을 강조하며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 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전남대를 도약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근배 총장은 전남대 의과대학 졸업 후 교수로 26년간 재직하면서 ▲직선제 초대 교수회장 ▲평의원회 의장 ▲거점국립대 교수회연합회 회장 ▲의생명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029년 2월까지다.

앞서 이 총장은 같은 날 오전, 제73회 전기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신임 총장으로서의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전남대학교의 이름을 품



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삶을 펼쳐나가길 바란다”며 4312명의 졸업생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전했다. 또한 총장 취임 인사말을 통해 “전남대학교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 가치를 선도해온 대학”이라며 “대학 구성원, 지역민, 국민과 함께 선진의 길을 개척해온 자부심을 바탕으로 더 큰 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 Dr. Lee Keun-bae Inaugurates as the 22nd President of CNU

#### “I will contribute to making CNU leap forward with the region and to the world.”

Dr. Lee Keun-bae officially inaugurated as the 22nd President of CNU on February 26, 2025 (Tuesday). The ceremony was held at 2:00 PM at the university's Minjumaru, with approximately 300 attendees, including the former president, key dignitaries, professors, staff, and students, to celebrate the university's new beginning.

President Lee stated, “I am delighted and grateful to have the opportunity to serve once more at my alma mater, where I have spent 26 years as a professor. I will go back to the founding spirit of the university, established in 1952, and strengthen CNU even further.”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and regional cooperation, declaring, “I will position CNU as a key base that drives regional growth and help it rise to become a globally recognized university meeting the needs of our time.”

Dr. Lee, a graduate of CNU's School of Medicine, served as a professor for 26 years and held several significant positions, including ▲ the first elected president of the Faculty Senate, ▲ Chair of the Board of Trustees, ▲ President of the National Flagship University Faculty Association, and ▲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Biomedical Sciences. His term will run until February 2029.

Earlier in the morning, Dr. Lee attended the 73rd Spring Commencement Ceremony, marking his first official engagement as the new president. He encouraged 4,312 graduates saying, “I hope you will lead meaningful lives in your respective fields as you step into the world with the name of CNU.” In his inaugural speech, President Lee added, “CNU is an institution that has overcome numerous challenges, solved real-world problems, and shaped future values. With pride in having paved the way for progress alongside the university community, local residents, and citizens, we will achieve even greater advancement.”

## 전북대학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전북대, AI와 함께 미래로 간다

전북대학교는 AI 기반 디지털 혁신을 통해 미래형 대학의 새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The Best AI University’를 비전으로 내세운 전북대는 대학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120억 원의 규모의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는 행정, 학사, 포털, 모바일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전방위적 디지털 전환으로, 운영 효율성과 정보보안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AI 교육지원 시스템과 논문교정 서비스, 맞춤형 진로상담 플랫폼 ‘JBNU AI 친구’ 등을 도입해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정밀하게 지원한다. 특히 진로취업 정보를 실시간 분석제공함으로써 학습자 중심의 AI 교육환경을 실현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학습 가능한 대학’을 만들어 가기 위한 의지다. 현재 162개인 온라인 강좌를 2027년까지 500개로 확대해, 국내외 학습자 누구나 수강하고 학위 취득까지 가능한 개방형 고등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시공간을 초월한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것으로, 오프라인 수업에 국한했던 전통적인 고등교육의 벽을 넘고, 디지털 기반의 미래형 교육 플랫폼으로 도약하려는 전략이다.

또한 실감형 AI 체험공간인 ‘AI 스페이스’를 구축해 교수·학생·직원이 Apple Vision Pro, ChatGPT, Midjourney, Adobe Firefly 등 최신 생성형 AI 도구를 자유롭게 활용하며 실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공간에서는 AI 기반 교수법 특강, 콘텐츠 제작, 프롬프트 경진대회 등 몰입형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실전형 AI 인재 육성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Jeonbuk National University (JBNU) Moves Towards the Future with AI

Jeonbuk National University is pioneering a new model for future-oriented universities through AI-driven digital innovation. Embracing the vision of becoming ‘The Best AI University,’ JBNU is implementing a comprehensive ‘Next-Generation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with a budget of 12 billion KRW, integrating AI across all university functions. This project encompasses administration, academic services, portals, and mobile services, significantly enhancing operational efficiency and information security.

In the field of education, JBNU has introduced an AI-based educational support system, a thesis proofreading service, and the tailored career counseling platform called ‘JBNU AI Friend,’ meticulously supporting each student's growth. By providing



##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잇따른 국책사업 선정... 전남대학교, 미래 전략과 역량 대외적 입증

CNU Proves its Strategic Vision and Capabilities by Being Selected for Major National Projects

전남대학교가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며, 대학의 전략적 비전과 실행 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우선 전남대는 광주광역시·전라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919억 원(2025년 183억 91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 생태계를 구축해 나간다.

또한 ‘2025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도 선정되어 5년간 357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전남대는 인공지능(AI) 융합 산업을 특화 분야로 설정하고, 전주기 창업 지원 체계를 통해 기술기반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특히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 인재가 지역 내에서도 글로벌 창업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인 연구 여건을 제공하는 ‘이공계 연구 생활장려금 지원사업’에도 선정됐다. 2025년 22억 3400만 원을 포함해 총 201억 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대학원생들이 생계 걱정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남대의 연구 경쟁력을 한층 높일 전망이다.

인문학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전남대 인문학연구원은 ‘2025 인문한국3.0(HK3.0)’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6년간 46억 원의 연구비를 확보했다. ‘플루리질리언스’라는 개념을 통해 위기 시대의 복합적 회복탄력성을 다차원적으로 탐색하며, 인문학의 공공성과 실천 가능성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CNU has been selected for a series of key national projects led by government bodies such as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Ministry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Startups.

First, CNU has been selected for the “RISE (Regional Innovation Hub University Support System)” project in partnership with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Jeonnam Province. This project will secure a total of 91.9 billion KRW (approximately 183.91 million KRW in 2025) in national funding over the next five years. The consortium will establish an education and research ecosystem linked to regional specialized industries.

Additionally, CNU has been chosen for the “2025 Leading University for Startups Program,” securing 35.74 billion KRW over five years. CNU will

focus on AI convergence industries and create a comprehensive startup support system, nurture tech-based startups. This initiative aims to provide a global entrepreneurial environment for the local young talent, who are often drawn to larger cities.

Moreover, the university has been selected for the "Science and Engineering Graduate Research Living Incentive Support Program," which will provide a total of 20.13 billion KRW in 2025, Bringing the total support to 201 billion KRW over X amount of years. This program aims to offer stable research conditions for graduate students in science and engineering fields, allowing them to focus on research without financial burden, further enhancing CNU's research competitiveness.

In the humanities field, the Humanities Institute of CNU has been selected for the "2025 Humanities Korea 3.0 (HK 3.0)" project, securing 4.6 billion KRW in research funding over the next six years. The project will explore "pluresilience," a concept describing complex resilience in times of crisis, expanding the public and practical applications of the humanities.



## “사적지 제1호에서 되살린 오월의 정신...세대가 공감한 연대의 시간”

Reviving the Spirit of May 18 and A Time of Solidarity Reshared Across Generations at the First May 18 Historic Site



전남대학교가 개교 이래 처음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대규모 주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그 시발점이자 제1사적지로 지정된 전남대 정문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지난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총 5일간 전남대학교를 중심으로 광주 전역에서 다채롭게 펼쳐졌다.

올해 행사는 민족·민주화성회 기간(14~16일)과 5·18 항쟁 기간(17~18일)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헌혈 나눔, 주먹밥 나누기, 민주평화대행진 등 시민 공동체 정신을 재조명하는 상징적 프로그램들이 호응 속에 진행됐다.

특히 14일 열린 ‘5·18 굿즈 디자인 공모전’과 ‘그날의 벽화 그리기’, ‘오월 영화 상영’ 등 문화 콘텐츠 중심의 행사들은 학생들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속에 활기를 띠었다. 교직원과 학생이 총장을 시작으로 참여한 릴레이 헌혈은 1980년 당시의 희생과 연대를 떠올리게 했고, 영화 서울의 봄 상영은 뜨거운 오월의 기록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감동을 자아냈다.

같은 날 전남대학교 용봉홀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명예 철학박사 학위 수여식이 진행됐다. 전남대는 헌정 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발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 등의 공로를 인정해 명예 학위를 수여했으며, 이근배 총장이 직접 학위를 수여했다.

17일 열린 ‘민주평화대행진’은 전남대 정문에서 금남로까지 도보로 이어졌으며, 총학생회, 교수회, 직능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 지자체 관계자 등 1만여 명이 함께해 대규모 퍼포먼스로 완성됐다. 이는 전남대가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의 출발지였음을 기리는 가장 상징적인 행사로, 참여자들은 “오월의 함성이 오늘의 발걸음으로 되살아났다”고 평가했다.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서울동창회 소속 졸업생들이 전남대 민주길 투어에 참여해, 전남대가 품은 민주화의 발자취를 함께 걸으며 세대 간 기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CNU successfully concluded its first large-scale week-long event commemorating the May 18 Gwangju Democratic Uprising. Held from May 14

to 18, this event marked the 45th anniversary of the movement, reflecting on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CNU's Main Gate, the first historical site designated for May 18. The commemorative events took place across Gwangju, with CNU serving as a focal point.

The event was divided into two sections: the period of the National Democratization Movement (May 14–16) and the National Democratization Movement period (May 14–16). Symbolic programs, including blood donation drives, sharing rice balls, and the Democracy Peace Parade, were held to rekindle the spirit of community solidarity.

Notable cultural programs included the “5.18 Merchandise Design Contest” and “Mural Painting of the Day,” along with screenings of “May/Films” on May 14, engaging students and citizens. The faculty and students participated in a relay blood donation, honoring memories of the sacrifices and solidarity during the 1980 protests. The screening of “12.12: The Day” vividly shared the intense memories of May 1980, touching everyone who attended.

On the same day, CNU held an honorary doctorate ceremony for Representative Woo Won-sik in recognition of his contribution to restoring constitutional order, advanced democracy, and advocating for vulnerable groups. President Lee awarded the degree.

On May 17, the “Democracy Peace Parade” marched from the university's Main Gate to Geumnam-ro, with around 10,000 people, including students, faculty, labor union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local government representatives. The event was a powerful performance, symbolizing the university's role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May 1980 democratization movement. Some participants reflected, “The cry of May has come back to life in today's steps.”

On the final day, May 18, alumni from the Seoul chapter of the CNU Alumni Association participated in the “Democracy Trail Tour,” retracing the historical footsteps of democracy on campus and sharing memories and reflections across generations.